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97)(12/2/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6 장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임을 증명함, 4-5 절

마 16:23 -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시 27:1-3 - 1.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딤후 6:12 -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4. 너는 네가 선한 것을 열망하거나 온갖 경건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네 원수 마귀가 온 힘을 다해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원수는 네가 성인들을 공경하거나, 나의 십자가 고난을 경건하게 기념하거나, 죄를 기억함으로써 유익을 얻거나, 네 자신의 마음을 지키거나, 덕을 쌓는 일에서 진보를 이루어 내겠다고 확고한 결단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 네 원수는 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 너로 하여금 피곤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기도와 거룩한 독서를 멀리하게 만든다. 네 원수는 네가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 방해하고, 할 수만 있다면, 네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 원수가 자주 너를 울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속이고 미혹하는 말들을 속삭인다고 할지라도, 너는 네 원수가 하는 속삭임들을 믿지도 말고, 그 속삭임들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말라.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네 원수가 그런 생각을 네 속에 집어넣은 것임을 알아차리고서는, 그 원수에게 이렇게 말하라. “더러운 영아, 썩 물러가라(마 16:23). 이 파렴치한 자여, 부끄러운 줄을 알라. 내 귀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너는 지독하게 더러운 자이다. 이 사악하기 짝이 없는 사기꾼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용맹스러운 전사로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 말에 동의하여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온갖 형벌을 다 받고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네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 . .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 . . 여호와와 나를 도우시는 자요 나의 구속자이시로다(시 27:1, 3; 19:14).

5. 너는 좋은 군사가 되어 싸우라(딤후 6:12). 종종 연약하여 넘어진다면, 나의 더 큰 은혜를 의지하여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큰 힘으로 다시 싸우고, 헛된 자만심과 교만함을 특히 조심하라. 그러한 자만심과 교만함으로 인해 눈이 멀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키기 힘든 치명적인 잘못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 너는 교만한 자들이 어리석게도 주제넘게 행하다가 멸망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늘 겸손하게 행하여야 한다.

말씀과 해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할 때나 고난 중일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갈망하며 찾고, 예배하며 기도한다. 시 42:1-2 - 1.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주를 갈망하며 찾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 노력한다. **엡 4:13, 15 -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할 것을 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도 권면했다. **빌 2:5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을 본받고 닮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십 일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공생애 사역을 준비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눅 4:1-2 - 12.**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 훈련과 함께 깊이 기도하셨을 때 마귀의 시험이 임했다는 것이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고난 당할 때만 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할 때, 일이 잘 될 때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빈틈을 노리며,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엡 4:27 -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뱀전 5:8 -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처럼 되기 위해 영적 훈련에 열심을 낼 때 마귀는 그것을 못 마땅하게 여김으로 다양한 시험을 통하여 그 모든 영적 활동을 방해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음을 늘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눅 22:45-46 - 45.**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성도는 예수님처럼 기도 한 후에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영성 훈련이 계속 될 때 언제나 마귀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마음을 풀어 놓지 말고, 교만하지 않는 가운데 늘 주 안에서 깨어 있고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눅 21:34-36 -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닢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되기 위해 늘 애쓴다. 비록 그 과정에서 영적인 시험과 공격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흔들림 없이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 계속 되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내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코비드 변이 바이러스를 제어하여 주시고, 하루 속히 펜데믹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3. 이 땅에 세우신 신학교들이 미래 교회를 위한 주의 신실한 종들을 배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